

홍성조 선생님댁을 찾아서

〈편집위〉

지난 여름 아침부터 찌기 시작했다. 한 차례 소나기라도 내렸다면 검푸른 아스팔트의 열기를 잠재울 수 있었으련만…….

보충수업을 갓 끝낸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달래며 홍성조 선생님댁을 방문하였다. 우리들과는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지라 마치 길 떠나는 나그네처럼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우리들 주위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문일여고가 부평에 왔음을 설교라고 하듯이 떠들썩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 어우러졌던 우리들의 얘기들을 멈추어야 했다. ‘과연 선생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어쩌면 아직도 이불속에 계실지도 몰라. 아니야 잔뜩 긴장된 모습이실꺼야.’ 불쑥 뛰어들어 가 선생님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싶다.

“씻, 씻 조용히 해.”

숨을 죽이면서,

“딩동, 덩동.”

다섯 살 가량 되어 보이는 꼬마아가씨가 수줍어 하면서 우리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명인의 귀엽고 애뉠 목소리였다. 집안을 들어서자,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집 구석구석까지 사모님의 손길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멋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들에게 놀란 아들 민기가 겁에 질린 토끼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리가 그리 험악하게 생겼나? 아니 그리고, 어엿한 숙녀가 왔는데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

네. 민기야! 아래가 참 시원하겠
다.) 아직 이른 시간이기에 사모님
께서는 설것이를 하고 계셨다. (학
교에서는 지각을 밥먹듯이 했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민기는 텔레
비전 광고를 주시하면서 우리들 사
이를 휘집고 다녔다. (헤헤, 선생님
께서도 여학생들 앞에서 수줍어 하
셨겠지. 지금이야 여학교에서 생
활하시니까 뭐.) 명인이는 그래도
켰다고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열
심히 그리고 있었다.

“선생님, 명인이와 민기가 어떻
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뭐 시키고
싶은 것 있으세요?”

사모님께서, 선생님을 보시고 살
짝 미소를 띄우셨다.

“가끔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는데, 우선 명인이와 민기가
하고 싶은 것 시켜야지 뭐.”

혹시 그 마음이 변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정갈한 목
소리를 가지신 선생님.

“선생님 무슨 운동 하실줄 아셔
요?”

“글쎄, 중학교 때 배구선수였
지.”

모두들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

다. 웃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
지

“선생님께서요?”

“지금은 이래도 그때는 더 나왔
어. 하지만 키가 크지 않아 계속할
수가 없었어. 지금의 키가 중학교
때 키라구. 그리고 다 운동들을 거
의 눈으로 즐기는 편이지.”

선생님께도 키 작은 사람의 설움
이 있었구나! (선생님 그래도 가끔
씩은 운동장에 나오셔서 뛰세요.)

선생님의 머리가 아주 깨끗이 삭
발을 하신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
을까? 거기다가 회색 두루마기를
걸치신……. 선생님의 꿈은 스님이
였다고 한다. 하긴 선생님께서는
지금 다만 삭발만 하지 않은 치마
입은 승녀를 가르치고 계시니까.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신 사
모님의 심정을 어떠실까?

선생님께서는 이웃학교 문성 여
상에서 사모님을 만나셨다. 선생
님이 무엇이길래 어쩌다 데이트를
하면 시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 항
상 교외, 시골길을 거닐었다고 하
신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도 학생들에게 들킨 적이 없으셨
다. 결혼 일주일 전에야 비로소 알
았다니(이럴수가) 주위의 선생님

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그래서인지 사모님께서는 제대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했다며 투정을 하셨다.

“남들은 다 청혼을 받을 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촛불이 켜져 있는 케익을 사이에 두고 했다는데...”

왜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이지 못했나 하시면서 선생님을 나무라셨다.(아니, 선생님께서는 우리한테 좀 배우시지.) 계속 사모님께서는 선생님께서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만 하신다.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시달리신 선생님께서는 집에 가서는 녹초가 되시는지 명인이가 어찌다가

“아빠! 이게 뭐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얼버무리고 마신다.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점수를 주세요. 아빠와 남편과 선생님이요.”

“글쎄, 정말로 자신이 없는 걸.”

하시며 선생님으로서는 90점, 아빠로서는 30점, 남편으로서도 30점을 주셨다. 이에 반하여 사모님께서도 아빠와 남편으로서 60점까지 줄 수 있다고 하신다. 그 만큼 선

생님께서도 학교 생활에 비중을 두시기 때문이 아닐까? (사모님! 선생님께 바가지를 긁으면 좋아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실까?

“선생님 모습을 말로서 자화상 그려 보세요.”

“뭐라고? 자화상을?”

“네.”

“.....”

자신이 없으셨던지 그냥 넘어 가시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크게 웃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피부가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웃는 사람들이 부럽다며 과거의 풍부하지 못했던 삶의 회포를 푸셨다. 그리고 눈동자가 맑고 깨끗한 사람이 한없이 부럽다고 하셨다. (한 6년동안 눈이 아팠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일제히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처럼 눈에 힘이 들어갔다.(그래서 선생님 눈 속에는 인자하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걸요.)

민기는 여전히 정신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눈망울을 초롱초롱 밝히며.

“선생님, 첫째 딸 명인이를 보실때 아들을 바라셨죠?”

“당연하지.”

아니 이럴 수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을……. (아닐까야. 아마도 그건 민기가 6대 독자라서) 아무튼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실망을 하셨음은……

“선생님, 학급 자랑 좀 해 주세요.”

“다른 애들보다 특히 정이 가는 애들이야. 무척 밝고 착한 아이들이지. 하지만 공부는 왜 그렇게 안하는지. 2학기 때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대해도 좋을꺼야.”

하시는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그 나름대로의 학급 운영 방침을 궁금해했다.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얘기를 나

누는 사이에 점심시간이 되었다. 사모님께서 어느새 준비하신 카레라이스를 열심히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

명인이가 건네는 껌 한 개를 받아들며 사진첩들을 구경했다. 사실 말해서 검은 교복에 박박 머리를 하신 선생님 모습을 보고 정말 귀여웠다.

선생님택을 나오며 명인기와 민기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민기야, 명인아! 미안해. 앞으로는 아빠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도록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 文苑

(정리 : 이성숙)

